

핵심 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총력

황인홍 무주군수, 국토부 장관 만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8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 이날 만남은 무주군 핵심 SOC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지역 접근성 개선과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사업과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과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도로 개량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신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간선 도로망 효율성을 높이고, 무주와 성주 등 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전주~무주 직결 노선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에서 부산·울산·경남으



황인홍 무주군수가 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무주군 핵심 SOC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로 이어지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무주의 국도·국지도 확충은 주민 안전과 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 또한 영호남을 연결해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도 만나, 무주군의 핵심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과 함께 그리는 축산 미래

최훈식 장수군수, 청년 한우농가와 간담회 가져

최훈식 장수군수가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청년 한우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한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축산위생과장 등 군 관계자 6명과 지역 한우 농가의 청년 농업인 5명이 참석했으며 장수한우의 우수 유전 자원 보호 및 개량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년 한우농가들은 장수한우의 우수 혈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우량 암소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원의 보호와 번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우량 암소 사육농가에 대한 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이 우수한 한우 송아지 매입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번식농가 대상 각종 보조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한우 암소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수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축산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우 산업은 장수 축산업의 근간이며 특히 청년 축산인은 미래를 이룰 핵심 동력이다"며 "청년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한우농가들의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번식 개량과 우수 혈통 보호를 통해 장수한우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상황보고회 열려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청 회의실에서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축제 프로그램별 담당 부서가 모두 참여해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축제 콘텐츠에 맞는 길러 콘텐츠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축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으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더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2007년 제1회 축제로 출발해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여야 한다"며 "지난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문객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운영으로 더욱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주천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성료

진안군 주천면(면장 김종길)은 지난 6일 주천성태공원에서 개최된 '제70회 주천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동창욱 군의회 의장, 전용태 도의원 등 관내 기관 단체장, 향우회원과 면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10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건강체조를 선보였으며, 귀촌자인 허은영 성악가와 주천초등학교 전교생, 주천행복한창단으로 구성된 노래 공연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의 장 공익장 최정수(83), 문화체육장 박정우(59), 산업근로장 석재경(57), 애환장 박정수(63)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재경주천면민회에서는 고향 학생 1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감동을 선사했다. 2부 체육경기에서는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진행되었으며, 3부 어울마당에서는 주천면민의 흥과 기를 발산하는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자) 주관으로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훈식 군수와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산서 두드리~고 난타팀의 힘찬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표창, 축하, 여성단체 활동 영상 상영,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이번 표창에서는 개인 8명과 단체 1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은 지역 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행사에서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바리바리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아동과 청소년이 바라는 대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장수군이장단협의회(회장 송동훈)도 함께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의 뜻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8일 부귀면에 조성된 굼터마을(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의 준공 및 환영식을 진행했다.

진안군, 농촌유학 1번지 도모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굼터마을' 준공... 14가구 42명 입주

진안군은 8일 부귀면에 조성된 굼터마을(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의 준공 및 환영식을 진행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 주민, 입주민, 부귀 초·중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하,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귀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재학생 대표의 환영 인사가 더해져 농촌 유학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에 준공된 굼터마을은 진안군 관내에서 최초로 조성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2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6월 착공해 지난 2층 건물로 9개동 18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굼터마을'에는 14가구 42명이 입주했으며, 이중 농촌유학생은 18명이다. 이에 따라 부귀초등학교 학생수가 1학기 기준 49명에서 69명으로 크게 증가해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 인구유입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군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면 단위에 완공 또는 조성 중인 행복주택을 거주시설로 활용해, 농촌유학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이 작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유입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6일 문예체육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을 농가주, 관내 결혼이민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대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6일 문예체육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을 농가주, 관내 결혼이민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55명을 시작으로 2023년 390명, 2024년 558명, 2025년 761명의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도입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파종기에 입국해 농한기간인 10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국하고 있는데 군은 이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새로운 이웃으로 함께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한마음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MOU 체결국인 필리

핀 계절근로자 490명과 농가주 220명, 결혼이민자와 가족 초청 근로자 270여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소풍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아끼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는 마령면 강성백 씨 등 농가주 6명이 진안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성실한 근무로 청정 진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 6명에게도 우수근로자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 후에는 필리핀·베트남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준비된 만찬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직접 준비한 단체 댄스와 자국 노래를 선보이며 농가주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개발 시식회 진행

진안군은 8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개발에 따른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식회에는 관내 음식점과 카페 4개소가 참여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120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와 맛·기호도, 가격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고기호떡 △돼지국밥 △마이산 동물랑 △마이산 꽃감식혜 슬러시 △흑미 파르페 등 총 5종의 신메뉴가 선보였다. 특히 '마이산 동물랑'은 계절별로 다른 재료를 접목해 △블루 녹차 △여름 요거트복숭아 △가을 썬인절미 △겨울 딸기 등 사계절의 매력을 담은 디저트로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 결과 돼지국밥은 진안산 흑돼지 수육을 얹어 불맛과 깔끔한 풍미로 호평을 받았으며, 고기호떡은 바삭



한 식감과 고소한 소가 어우러져 높은 인기를 얻었다. 곳곳 슬러시는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50~60대에게 호평을 받았다. 흑미파르페는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눈으로 먼저 즐길 수 있어 20~30대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마이산 동물랑은 마이산을 형상화한 모양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선물용 디저트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 가격과 보완점을 반영해 지역 대표 먹거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주영환 진안 부군수 주요 사업장 현장 행정

주영환 진안군 부군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군 주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월운정수장, 산림치유특화골목 등 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안전관리 실태, 주민 편의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모든 행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며 "각 사업장의 실제 현황 등을 파악해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차질 없이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10만원 지원

무주군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어르신 상품권 홈페이지(<https://ssvoucher.co.kr>) 또는 전용 전화 상담실(1561-9908)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이다.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시설은 제로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상은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진흥팀장은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이 스포츠 시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어 설명회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리소 회의실에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버섯류) 양어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임산물 양어는 국유림관리소와 해당 마을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감시 등 산림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 주민에게 국유임산물(송이·능이버섯, 고로쇠, 잣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무주·진안·장수·남원 등 16개 마을에서 송이·능이버섯 양어를 신청했으며, 양어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국유림보호협약, 양어절차, 위법행위자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촌마을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여 국유임산물 양어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